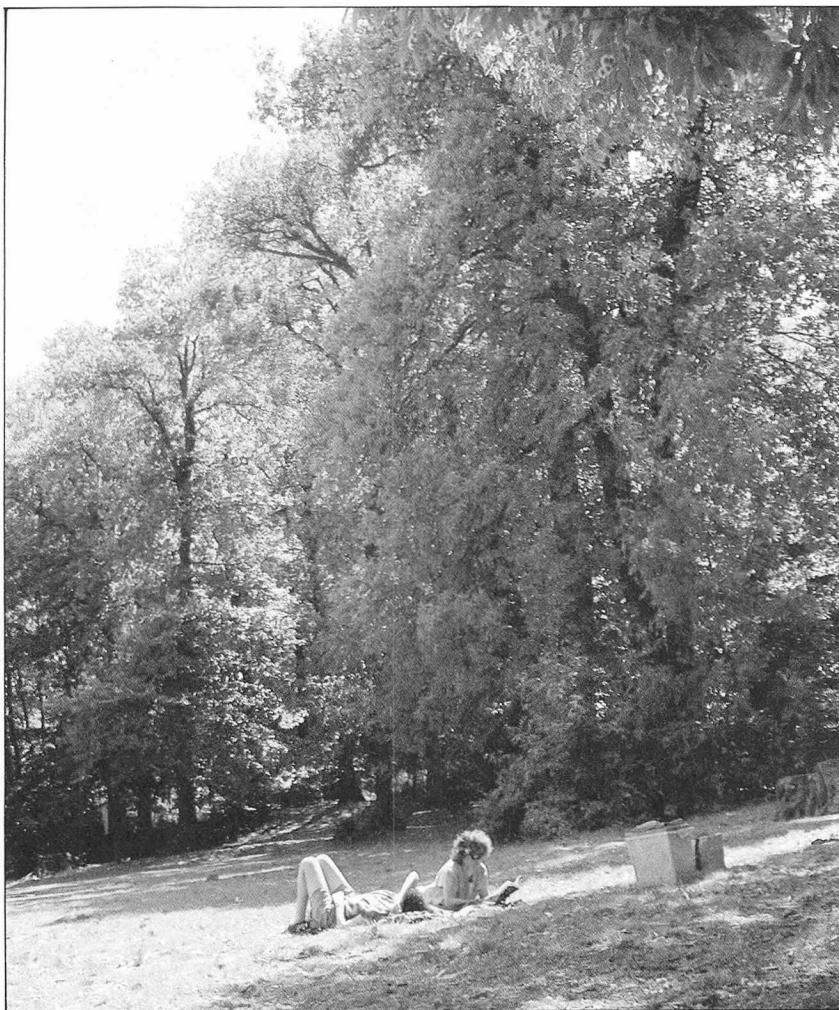


바람이 들려주는 속삭임 속에서

5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장을 넘기며

정진국
미술평론가



나무 아래 책장을 넘기는 풍경(사진/정진국).

에쿠엥 성 주변에는 낮은 언덕을 돌아나 보이게 하는 숲이 우거져 있다. 나무들이 버젓이 우람하게 뻗어 있는 것을 보면 모진 바람이 불어대지는 않는 동네인 것 같다.

풀밭에서 점심을 즐기거나 그들의 신선함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자리를 잡는다. 그냥 서 있어도 꽤나 큰 나무들은 그 아래에서 발장구를 치며 책장을 넘기는 아줌마들 때

문에 더 높이 솟아오른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책장도 덩달아 필러인다. 그림같은 풍경이다. 그리고 막상 이런 풍경을 그렸던 화가가 없었다면 온전히 음미하지도 못했을 풍경이다. 풍경의 이미지는 번번이 미술관이나 그 화폭 앞에서보다 그 그림을 담은 실제의 풍경 앞에서 더 간절하게 떠오른다.

아마 카미유 코르가 그린 풍경화들을 보지 못했다면 이 딱갈나무며 너도밤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잠시 숨이나 돌리고 돌아섰을 것이다. 철조망이나 방벽이 없고, 자릿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코르가 그렸던 대로 다가오는 풍경을 보자. 우선 하늘이고 뭐고 진한 갈색을 칠하지요. 그 다음에는 가라앉은 올리브빛으로 숲을 축축하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빛을 바뀌며 점점 밝은 연두색으로 옮겨가며 손을 놀릴 때마다 나뭇가지, 잎새들이 반짝이게 되지요. 그 사이사이로 열은 옥색을 살짝 바르지만 해도 하늘이 성큼 뚫리는 것입니다.

필름처럼 살아 움직이는 풍경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는다. 산호빛이나 따뜻한 색상으로 아주 멀리 보듯이 그 그늘 아래 여인들을, 그 팔다리를 그려넣어야 풍경은 필름처럼 살아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화면의 맨 아랫자리 측 전경에 끼어들면서 아줌마들은 풍경을 마무리지으려 든다. 아마 이 아줌마들이 풍경을 멀찌

감치에서 구경하고 있었다라면 코르의 풍경이 이 자리에 찾아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들이 독서에 푹 빠져 있었던 덕분에, 바로 요정들이 뛰어놀거나 목동이 앉아 쉬거나 했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나 해야겠다. 사냥의 여신이, 혹은 성 세바스찬아 몸을 눕혔던 그 자리에서 그녀들은 책장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환갑이 다 되어서도 '비너스와 박쿠스 신에 건배'를 외치다가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화가가 보여주었던 풍경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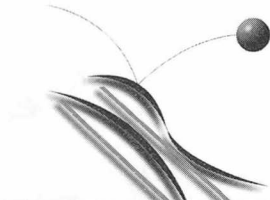
이 그늘 속의 행복한 한 순간에 굳이 코르의 그림이 겹쳐오는 까닭은 이 화가가 그토록 행복했던 사람이라고들 했기 때문일 까. 에드몽 콩쿠르는 "복이 많은 친구지요, 그림 그릴 때는 그림 그려 좋고, 그리지 않을 때는 쉬니 좋고,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을 때는 그럭저럭 살만 했으니 좋고, 상속을 받았을 때는 재산 불어나 좋고, 무명시절에는 조용하니 좋고, 성공했을 때에는 더러 모델너들이 뺄질나게 찾아오니 좋고"라며 그를 대단히 행복한 화가로 묘사했었다.

화가들이 다루어 풍경 속에 인물을 그려 넣는 방법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1850, 60년대에, 그는 선배들처럼 고전적인 목욕하는 여인들이나—여신에 가깝게 다뤄져온—혹은 후배들처럼 현대의 대단한 작부를 그려넣기보다는 "이제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소녀가 상반신을 드러낸 채 머리를 땅고 있는 모습을 전경에 그려넣고 그

[디자인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모두 뛰어난 책,
내용은 훌륭하나 형식이 뒤따르지 못한 책,
형식은 그럴듯하나 내용이 보잘것없는 책,
내용과 형식이 모두 형편없는 책 -

다름기획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내용을 적절한 그릇에 담아내는 것,
바로 다름기획의 일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다름기획, 뭔가 다른 기획입니다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어학교재 · 학습지 디자인 / 전문교열 · 교정

다름기획

DAPL: Publication Design Planning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1208호

TEL: (02)707-0572 FAX: (02)707-0573

[문장에도 숨구멍이 있습니다]

숨구멍이 막힌 문장은 생명 없는 책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원고,
어쩔지 꺾끄러워 잘 읽히지 않는 번역원고,
몇 군데 숨길만 튀워 주면 좋은 책이 될 원고,

다름기획은 이런 원고들의 숨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다운 리라이팅으로 쉼표 하나까지,
섬세하게 다듬어 드립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정글북

갈리마르 출판사의 'The Whole Story' 시리즈

장익순 · 출판기획자

뒤로는 나무에 기대어 책읽는 여인을 그려 넣었다.

책을 읽고 있는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전경의 소녀는 고전적인 누드의 재탕이 되었을 뻔했고, 또 전경의 소녀가 없었더라면 맥빠진 사실화가 되었을 뻔했다. 여기에서도 그의 나뭇잎들은 단지 푸릇푸릇한 반점들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훈풍의 향기를 실어나를 뿐이다.

책 읽는 여인의 조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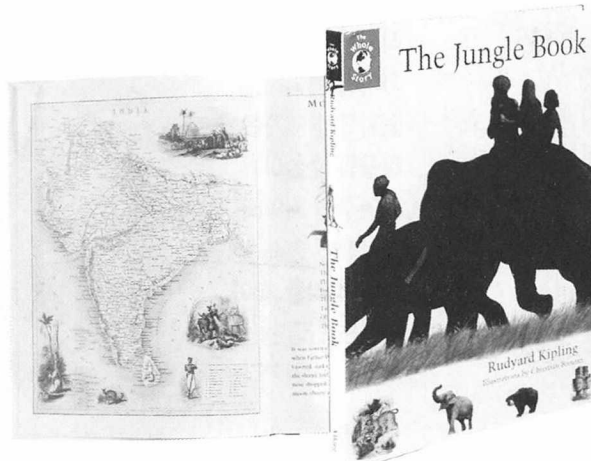
이 고전적인 운치와 사실적인 설득력은 책읽는 여인을 조역으로 동원했기에 가능했던 그런 것이다. 그 고요한 평정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그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포즈도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독서는 흔히들 말하듯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장면의 환영, 하나의 이미지에 영기를 불어넣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독서에 흠뻑 빠진 여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모습이 아닌 바로 그렇게 열중한 모습에 흠뻑 빠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소풍을 나서고 들과 산을 찾으면서 우리는 워크맨 아니면 책을 챙겨놓는다. 아직까지 워크맨에 도취한 인물이 풍경화 속에서 불멸의 이미지로 남은 적은 없다. 워크맨과 바람의 속삭임을 함께 즐길 수는 없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면서 우리는 바람이 연주하는 입체음향까지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 ❖

현대사회가 이토록 빠르게 변하는 것은 바로 경쟁 탓이다. 자본주의의 기본원리가 요즘처럼 치열하게 작동한 적이 없었다. 자본이 자본을 낳고, 시장이 넓어지면서 경쟁이 생기자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고, 이제는 국가간 시장도 개방되면서 경쟁우위를 위한 무차별적인 상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빠른 변모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마음 놓이는 것은, 변해왔자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전자출판이 극도의 기능을 추가하며 변해도, 텍스트에의 의존성은 변치 않는다. 그 기능이란 텍스트를 가능하면 쉽고 풍부하고 빠르게 흡수하려는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충족'이라는 것이 독자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전보다 더 수동적이며 말단적인 것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수성의 풍부함과 상상력의 능동성 모두를 추구할 수 있는 발전은 없을까?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펴낸 'The whole story' 시리즈는 이러한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 할 만하다. 'Whole'이 뜻하는 것도 바로 이 두마리 토끼 모두를 아물렀다는 뜻이겠다. 기존의 방식, 곧 적극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활자들의 평면 행진을 입체적인 이야기로 뇌리에 재생하는 것에 감성적인 교차 자극을 적절히 주어 그 재생력의 구체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말이다.



'The Whole Story' 시리즈로 새롭게 출간된 <정글북>.

이 시리즈 가운데 <정글북>을 사례로 들어보자. <정글북>은 주지하다시피 영국 작가 루이아드 키플링의 작품으로서 1900년대 초 인도의 정글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실제 사례였던 '늑대소년 이야기'를 작가는 소설적 상상력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어느 어린이가 문고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수작이다.

갈리마르 기획자는 기존의 <정글북> 텍스트를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변모시켜 전혀 새로운 현대판 텍스트를 만든다. 첫단계는 기존 활자 텍스트에 영상적인 삽화를 적절히 교차시키기. 이 단계는 흔히 있었던 삽화 처리를 좀더 정교히 한 것일 뿐이다. 두번째 단계는 여기에다 소설의 배경인 1900년대 초의 인도 풍물과 생태를 적절히 부가하기.

세번째 단계는 활자 텍스트와 영상적인 삽화, 풍물과 생태사진 세 요소를, 상상력의 구체성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편집 디자인 하기.

이러한 세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획자가 작품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이야기 구조의 전개 리듬을 철저히 계산해야 하며, 그 리듬을 타고 독자들의 상상력을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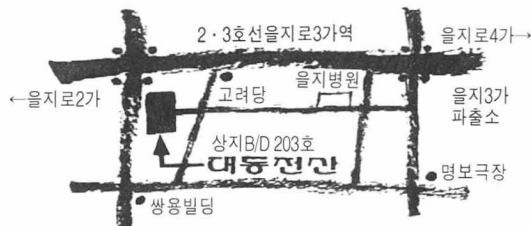
대한 재미있게 확대시킬 수 있는 자료의 배치를 면밀히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작가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단순히 활자라는 매개체로 연결해주었던 기존의 소설 출판 기획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바꾸어버리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결과, <정글북>은 이제 전혀 새로운 텍스트가 되어버렸다. 이 한편으로 독자들은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내재한 작가의 역사적 체험까지도 더욱 구체적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활자와 사진과 삽화를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한쪽한쪽 전개하고 있어서, 독자들은 읽는 시각적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아래아한글 (IBM PC) 출력센터

- F1 필름, 인화지, 레이저 프린트 출력
- F2 PC로 작업한 데이터 편집출력
- F3 입력, 편집대행, 교육지원
- F4 다양한서체, 최대한자 및 고어지원
- F5 MS-WORD, 훈민정음 등

신속 · 정확
(일본어 조판전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26 상지B/D 203호
전화번호: 275-0196 ~ 7,
265-9271 275-7143

팩 스: 275-7145 천리안 · 하이텔: SOGO0318

♣ 전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을지병원출구

24시간출력
기다리겠습니다!

대동전만

“좋은 출력
좋은 책!”